〈제 6 주제〉

이산가족찾기 운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방송의 공공성

추 광 영
(서울대 신문학)

1. 서 론

KBS의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총방송일수가 138일, 출연신청자가 100,952인에 달했고, 이중 62,525명의 애절한 사연이 소개되었으며, 재결합 가족수만 헤도 10,18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읍니다.

이들 숫자들은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일깨워 주는 숫자들인 동시에, KBS의 이번 캠페인이 얼마나 대중의 절실한 내적 욕구를 충족시켜준 획기적 기획이었던가를 실감케 해주는 것입니다.

KBS의 이번 특별방송이 달성한 성과는 세계 방송사상 유례가 드문 획기적인 것이었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는 밖으로 들어난 양적 또는 가시적 결과만으로는 그 총체적 윤곽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며 그 진정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 국내외의 폭발적 반응, 그리고 외면적으로 거둔 수치상의 성과와 아울러, 이 기획의 참된 의미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할 때, 함축적 의미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즉 종래까지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동적인 수신자의 위치에만 있던 대중의 직접참여와 접근을 허용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논하지 않고

서는 이 캠페인의 진정한 성과의 일부를 잘못하면 놓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KBS의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을 국민대중의 커뮤니케이션 욕구(needs)와 그들의 「커뮤니케이트 권리 (Right to Communicate)」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조명해 봄으로써 그 성과와 방송사적 의의를 평가해 보고, 나아가서 공영방송으로의 KBS가 지향해야 할 방향의 일단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2. 커뮤니케이션의 본질(本質)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주로 직선함수적인 또는 일방통행적(one-way)인 모델에 의하여 해석되어져 왔읍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채널을 통하여 무슨 효과를 가지고 말하나? (who says what to whom in which channel with what effect?)」[1]라는 도식에 의하여 인식, 설명하여 왔던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는 통상 의사전달로 번역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사전달보다는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며 이 점은 곧 부연설명이 되겠읍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같은 종래의 패러다임(Old Paradigm)은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일방성, 다시 말해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 또는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본가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었읍니다. 이런 모델이나 분석들에 의할 경우는 송신자만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이며 수신자는 객체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도 일방적, 하향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Old Paradigm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체제나 모델에서는 수용자 또는 일반 대중은 커뮤니케이션의 객체의 위치로 소외되고 마는 것이며, 그들은

1) H.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W.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s* 2nd. ed. (Urbana: The Univ. of Illinois Press, 1972) p. 117.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전파하여 어떤 효과를 유발시켜야 되는 표적(target)으로서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Old Paradigm은 최근 들어 설득력있는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고 가장 최근의 이론들은 「커뮤니케이트할 권리」란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1969년 프랑스의 쟝 다르시(Jean D'Arcy)[2]에 의하여 최초로 대두된 「커뮤니케이트 권리」란 개념은 우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읍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 즉,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위에서 밑으로의 수직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닌 쌍방적 또는 다방적 교류(exchange)이고,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고 상호작용(participatory and interactional)하는 수평적인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송수신자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가 아닌 대등한 "상호교류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3]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호교류란 의미에서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며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전통적 서구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Lasswell의 분석틀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인 상호작용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시대착오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시각에서는 현재의 매스미디어 체계는 「1인 또는 소수로부터 다수로(one to many)」의 체계이며 대량매체 위주로 발전된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일부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들만이 정보를 수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구조지어져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대중은 극히 빈약한 피드백(feedback)만 가능할 뿐 동참과 상호교류가 허용되지 못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수동적 객체일 뿐이며 매스미디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닌 일방적 전달을 위한 매체로 파악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정

2) Jean D'Arcy, "Direct Broadcast Satellites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EBS Review*, Vol. 118 (1969).

3) L.S. Harms and J. Richstad, "Human Rights, MajorCommunication Issues, Communication Policies and Planning—And the Right to Communicate," in International Broadcasting Institute, *The Global Information Formation of Domestic Policies*, (1975) pp. 55~63.

보의 일방적, 불평등적 전파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의사소통 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시에레(Cassierer)[4]는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을 모두 인간과 인간, 지역과 지역간에 물건이나 의견, 사상을 옮기는 과정으로 비유하면서 현대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채널은 마치 서울에서 지방으로 돌아옴이 없이 보내기만 할 목적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행위와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는 일방통행의 매체로서 대중을 "소비자" 또는 "표적 관중(target audience)"으로만 파악하고, 그들의 반응은 오직 양적인 독자수 또는 시청자수로만 파악하는 정보와 오락의 매체일 뿐 사상과 의견의 교류가 불가능한 권위주의적 하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중은 시청율주의의 희생이 되고 있고, "잡혀있는 관중(captive audience)"으로 전락되어 있으며 매체는 비본연화(denaturized)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전달만을 위한 매개체일 뿐, 매스미디어의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3. 커뮤니케이트 권리(The Right to Communicate)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기능도 당연히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 이론가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절대 필요한 기본 욕구(basic needs)이며 커뮤니케이션은 마치 "정신의 음식물(food of the mind)"과 같은 것이고 모든 인간은 생존권과 자아 실현 및 자아 발전의 권리를 갖듯이 커뮤니케이트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자기 발전과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자원(resources)이며 자양분인 동시에 이를 통해서만 또 다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5]이란 논리입니다.

---

4) Henry R. Cassierer, "It's a Long Way to Communication," in L.S. Harms and J. Richstad, (eds.), *Evolving Perspectives on the Right to Communicate* (Honolulu, East-West Center 1977) pp. 53~64.

5) L.S. Harms and J. Richstad, (eds.) *Ibid*, p. 9.

따라서 Elliot[6]는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인간의 자기 발전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성장욕구(growth needs)라고 규정하고 있고 Pomorski 역시 이를 성장의 기본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와 공통인간성(humanity)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교섭의 기초가 되는 자원으로 인식됩니다. 즉 개인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 및 문화적 발전과 상호의존적 또는 보완적 관계에 있고 개인은 자기 발전을 위해 소속된 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사회 발전을 통해 자아의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그들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해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개인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만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동시에 타(他) 발전의 전제와 수단인 자원이라는 것입니다.[7] 그런고로 사회의 모든 경제적, 기술적, 인적 자원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욕구충족을 위해서, 즉 커뮤니케이트권의 실현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당위이며 모든 통신수단들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부연하면 매스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통신자원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역, 즉 인간이 매스 미디어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일방통행의 매체 제도는 그 존재양식이 전도된 것이며 이제는 매체가 대중에게 무엇을 하는가(What the media do to the people)를 벗어나 대중이 매체를 갖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What people wish to do with the media)가 논의의 촛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8] 즉 매체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공평하고 참여적이며 상호 교섭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다운 문제이며 이에 부응되는 매체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일로 부각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트권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고 특히 언론의

6) P. Elliot, "Uses and Gratification Research," in J.G. Blumler and E. Katz (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 (Sage, Beverly Hills, 1975).
7) Harms & Richstad, *op. cit.*, p. 171.
8) Henry Cassierer, *op. cit.*, p. 61.

사회적 책임이론이 실천적 수준에서의 난점에 봉착하고 있음에 비추어 언론의 책임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인간성의 구현이란 시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트권은 다양한 구체적 권리를 포괄하는 복합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그 개념이 아직은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이 권리에는 대개 대중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서 첫째 정보를 제공할 권리(to inform, 말할 권리)와 정보를 받을 권리(to be informed, 알 권리)를 포함하는 정보권(information rights)과 둘째, 접근권(to have access) 및 참여권(to participate)을 포함하는 결사권(association rights)이 그 요체를 이루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여기서 접근권이란 미국의 배런(Barron)[9] 등 사회 책임론자들이 이미 주장하고 있는 정보원에의 접근 또는 매체에의 접근권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services)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신문, 방송 등 매스 미디어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하며 이것을 매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권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입각하여 쌍방성과 상호성(mutuality)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전통적 자유주의사상에 접목된 사회 책임론의 한계를 극복코자 하는 범지구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론이며 철학자인 M. Buber[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다른 모든 대상을 개념화되고 추상화된 사물 즉 객체로만 파악하는 「I—It」의 관계를 지양하고 상대방을 모두 「살아있고 반응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I—Thou」의 관계로 회복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서로 상반되는 양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자 중 어느 일방도 다른 일방을 흡수 복속해 버리지 않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확립을 위한 인식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4. 「이산가족찾기 방송캠페인」의 의의

KBS의 특별 생방송도 Lasswell이 old paradigm program의 관점에서 보

9) J. Barron,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3)

10) M. Buber, *Ich und Du* in *Werke* Vol. 1 (München: Kosel, 1964), pp. 77~170.

자면 그 효과는 바로 외형적·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난 숫자로만 파악될 것입니다. 즉 방송 program이 시청자에게 끼친 영향 또는 상봉가족수 등의 성과로만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국민의 커뮤니케이트 권리란 관점에서 고찰해 볼 경우 이번 캠페인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방송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즉 이번 캠페인은 국민대중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파악, 충족시켜 주었으며 공영방송의 종국적인 소유자이며 주인인 국민대중(공공)의 커뮤니케이트권을 그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데서 더욱 획기적인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본연에 투철한 프로그램의 전형을 발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이번 특별방송은 TV라는 매체에의 접근이 가장 어려웠던 소외된 일반시민들에게 접근을 개방하고 그들의 대폭적인 참여를 허용, 동반하였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영방송인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첫걸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캠페인의 시종을 통하여 주목되었던 사실의 하나는 방송출연자들의 대부분은 최하류 서민계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이산은 빈부와 계층의 차이와는 본래 무관한 것이었지만, 그동안 중·상층 이상은 그들의 사적 자원이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대부분 「이산」을 극복해 왔던 반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자원에의 접근이 용이치 않았던 하층 이산가족들에게는 이를 극복할 방편이 없었던 때문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들 하류계층에게 가장 강력한 매체인 전국적 TV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사연, 자신들의 소망을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말할 권리」와 「매체에의 접근권」이란 커뮤니케이트권을 행사케 해준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항상 수신자의 위치에서 듣기만 할 수 있었을 뿐(to hear)이며 말할 수는 없었고, 받기만 했을 뿐(to accept), 제안(to propose)할 수 없었으며, 객체였을 뿐 주체가 되지는 못했던[11] 계층이었읍니다.

11) Juan Somavia, "The Democratization of Communications," in *Development Dialogue*, (1982) vol. 1, p. 20.

국민대중의 대다수인 이들이 공중매체에의 직접적 참여를 통하여 그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일은 공영·사영을 막론하고 세계방송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이번 기획의 진정한 의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방송미디어의 접근에 관해서는 구미의 사회책임론자들이 부단히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시청자를 소비자로만 인식, 시청률주의에만 집착하는 사영방송의 폐해를 지양하자면 방송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정치의 요체가 되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의 노출과 매체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이를 부단히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 관해서는 access의 보장방안으로 소위 공정성 원칙(the fairness doctrine), 평등시간주의(the equal-time doctrine), 반론권 등이 구체화된 바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들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일반에의 접근에 관한 방안으로는 아직 어느 것도 구체화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방송시간의 10분의 1을 시민의 광장으로 혹은 시민의 시간으로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소위 십일조방안(tithing) 등도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송의 역사가 우리보다 길고 기술적 수준이 월등한 구미의 공영방송에서도 대중의 접근이 보장되는 제도는 전무하며 본격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KBS의 캠페인은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공영방송의 본질과 과제

참여와 상호작용 및 쌍방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커뮤니케이트권의 현실적 구현은 특히 공영방송에 있어서는 당위라고 할 수 있읍니다.

국민 전체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며 관리되는 즉, "국민의 방송"이란 적극적 의미에서의 공영 방송은 국민 일반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수렴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며 이의 구현을 존재연(存在然)으로 수임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곧 "신탁의 법리(法理)"가 성립되는 것이며 공영방

송은 국민 전체의 자원이며 사회공유재인 방송 service의 성실한 생산을 통하여 그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영 방송은 국민의 "커뮤니케이트권"의 보장을 의하여 진력할 임무를 갖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공영 방송에게는 국민 각층에게 적정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과 다원적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즉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편성, 운영이 요구되는 것이고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성을 보장하는 공공참여의 보장이 또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기획은 공영화 이후 많은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도주의에 입각한 일방성을 완전히 탈피했다고만 할 수 없는 KBS가 국민의 참여와 쌍방적 교류가 가능한 program을 통하여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발돋움하는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KBS가 갖고 있는 과제는 무수하며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영 방송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됨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읍니다.

첫째, 피드백 수렴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정보 욕구를 포함한 시청자의 여망을 파악하여 program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이미 정착되고 있는 시청자 회의 및 불만처리 위원회의 운영은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에 이어 전화·서신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특히 시청율 조사의 차원을 넘어선 시청자의 반응 조사를 제도화하고 부단히 시행하여 이를 반영하는 체제를 수립해야 될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현재 KBS는 년간 4회의 시청자 조사를 하고 있으나 시청자의 반응조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영방송인 영국의 BBS는 시청율뿐만 아니라 시청자 반응조사를 1년 365일 하루도 결름이 없이 계속하고 있음은 참작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방송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우선 방송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고루 도달될 수 있으려면 난청지역 해소와 채널의 전국 카바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

술 개발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텔레텍스트, 다중방송 등 신규 매체의 개발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되며 이를 위한 부단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째, 공중의 참여와 접근을 통한 의견의 다양성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서 이는 일방성과 계도주의를 벗어나고 공식적 채널의 복수주의가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견의 자유로운 개진과 수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소수 집단 또는 다양한 이익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의 개발과 정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중의 제작에의 참여를 위한 프로덕션 시스템의 진흥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란 획기적 기획을 통하여 세계 방송사상 최초의 대규모 대중참여와 접근을 보장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커뮤니케이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영 방송의 본연을 다시 일깨워준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KBS가 이 특별기획을 통해 거양한 공신력, 신뢰감의 회복과 국민으로부터의 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쌍방적이고 동참이 보장되는 프로의 개발과 국민의 다양한 정보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부단히 제공해야 할 과제가 남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을 때 이번의 역사적인 기획은 방송사의 거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KBS는 공영 방송의 귀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 기획의 진정한 성과와 의미는 KBS의 앞으로의 실적(performance)에 오히려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 못한다'는 속담이 시사하듯이 이와 같은 동참적이고 상호 교류적이며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이번의 경우처럼 큰 사건(event)이 아닌 항상적인 일 즉 루틴(routine)이 될 때 KBS는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성숙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제 6 주제 토론〉

사회 : 팽 원순(한양대 신문학)
토론 : 김 진홍(외국어대 신문학)
임 현진(서울대 사회학)
조 철화(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사회

감사합니다. 내용도 대단히 알차고 또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은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의미를 「The Right to Communicate」 즉 「커뮤니케이트할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커뮤니케이트할 권리」란 무엇이냐?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해서 종래 우리 국민이라든가 대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매스 미디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수용자의 위치로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대중도 미디어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커뮤니케이트해야 되겠다, 참여해야겠다 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의 이산가족찾기운동에 있어서 한두 사람도 아닌 몇만명의 사람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하는 의미에서 보면, 추박사 말씀대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방송사상에서도 기록될만한 대단한 큰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KBS가 한두 시간도 아닌 130여일을 같은 프로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박사님께서 「The Right to Communicate」라는 점에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의미를 찾은 것은 대단히 적절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토론자로 네 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먼저 세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한 10분간씩 각자의 입장에서 추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뒤에서 공영방송의 앞으로의 진로같은 것도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코멘트 내지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외국어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서 오신 김진홍선생께서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김 진홍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쪽의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마는, 추박사님께서 주로 휴먼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 다시 말해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할 얘기는 대부분 다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박사님의 발표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추박사님의 발표내용과 부분적으로 연관된다고 보아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하게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추박사님께서 언급하신 커뮤니케이션의 주체, 다시 말해서 방송주체 역할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 되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방송주체의 중요성이란 방송객체, 즉 수용자보다 방송주체, 즉 방송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는 하바드대학이라든가 MIT 대학에 커뮤니케이션정책 개발비를 막대하게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커뮤니케이션정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정책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의 특성에 따라 각 나라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은 다를 것입니다. 추박사님께서 커뮤니케이트할 권리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커뮤니케이트권이란 우리가 흔히 들어 온, 또 말해 온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 해석한 그러한 개념에서 역시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커뮤니케이트권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추박사님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그 이슈가 매우 진보적이고 하트(hot)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지 슬쩍 지나쳐 가셨읍니다마는, 허여튼 이러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중요한 요소

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제 오전의 토론과정에서 방청석에 계신 대학생께서 질문을 던졌읍니다마는 왜 지금 이 마당에서 30년이 지나서야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자 주제를 발표하신 이광규교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당신께서도 외국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노라고 언급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KBS의 이산가족 특별생방송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냐 하는 일반의 오해를 낳았던 사실과 맥이 통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동안에 정부가 분단극복문제라든가 통일논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정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족이산을 포괄하는 통일의 문제라든가, 또는 분단극복문제가 이와 같은 정책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지나치게 국가 안보라는 테두리 안에서 터부시해 온 하나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이 프로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도 언론계에 몸 담아 있었읍니다만 통일문제라든지 분단문제에 대한 일목요연한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도 자칫하다가 손해 보기 십상일 것 같고 해서 터부시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실예로 대개 6·25철 맞게 되면 TV라든가 라디오에서, 신문도 마찬가지겠읍니다마는, 특집방송이라든지 대형특집극을 만들곤 합니다마는, 이들 프로그램들이 대개의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았나 회상이 됩니다. 괴뢰군이 나오고 따발총 소리가 나고, 엄마 찾는 절규가 들리고, 그런 하나의 회고조로 일관되어 온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런 방송의 타성 그것은 KBS가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끝난 지금에도,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탄생되었다고 보여지는 KBS의 「남매」라든지, 또는 「전우」라든지, MBC의 「간난이」 같은 프로들이 한결같이 이런 회고조로 포맷(format)이 짜여지고, 그럼으로서 높은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회고조로 일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작태도, 이것은 방송의 제작진의 안이성만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단문제와 연관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부재에 기인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칫 분단현실을 고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정

책을 지양하고, 분단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위에서 방송주체들이 즉 방송인들이 민주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방송객체에게 즉, 수용자에게 하나의 문화적인 쇼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번의 KBS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도 당초에는 6·25 특집프로로 정책프로그램으로 제안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가 국민적 충격을 가져 온 것은 기왕의 어떤 획일적 제작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 즉 방송주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어져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앞서 전제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주체만이 중요하다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하는 지적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송주체란 P.D. 한 개인이 될 수 있겠고 방송국 전체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고 방송국 자체가 될 수도 있읍니다. 요즘 제작 방영되고 있는 특별생방송 이후의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KBS의 「남매」라든지, 「전우」, MBC의 「간난이」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성격상 유능한 스탭들을 동원해서인지 시청자 동원에는 크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제작역량을 동원해서 어제 김경동 교수님께서 문제제기 과정에서 언급하셨던 이산가족의 결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들, 이런 것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라마타이즈하게 된다면 더욱 성공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최근 작가 박완서씨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산의 문제를 그린 바 있읍니다마는, 박완서씨는 최근에 발표한 「재이산」이라는 중편소설을 통해서 30년 동안의 이산상황에서 극적으로 만난 가족이, 그들 주인공의 현상태와는 서로 다른 계층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 제2세대의 갈등과 위화감을 소설화함으로써, 텔레비전에서 보는 「남매」라든지 「간난이」가 보여주지 못하는 민족이산의 아픔을 더욱 절실하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작가 윤흥길씨는 최근 한국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한 장편소설 「청산아 네 알거든」에서 민

족의 이산을 어제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오늘 당대의 시각에서 그려보겠다고 포부를 말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TV가 항사 상용하는 눈물짜기라든지 회고조의 구성으로는 절실한 감동을 선사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학이 TV보다 앞서 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을 통해서 모처럼 하층 민중과의 친화력을 회복했다고 보여지는 KBS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마냥 발전되어 가고 있고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속도와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자기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제 소감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질문사항이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세 분의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발표자께서 다시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계시는 임현진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현진

저는 방송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적인 얘기는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다행히 김교수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매스컴과 사회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추교수님의 말씀과 결부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1948년에 조오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오세아니아의 일상생활을 무대로 해서 「1984」년이라는 작품을 썼읍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는 극도의 전체주의 아래에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통제되는 위기에 봉착한 미래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1984년을 우리는 불과 한달 남겨놓고 있읍니다마는, 그가 그린 그러한 불행한 미래는 당장 내년에 온다기 보다도 앞으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날의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를 살펴볼 때 하게 됩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구속하고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매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웰도 사고와 언어의 통제를 통한 불행한 미래를 그렸듯이, 오늘날 매스컴이라는 것도 추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인 수신자와 송신자의 관계를 통해서 대중의 사고를 왜곡하고 나아가서는 의식을 오도하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일면에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언론이라는 것이 최고 하부구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과 분배라는 것이 주로 송신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입각해서 국민적 다양성을 통합시킨다기보다는, 획일주의적인 입장에서 통제를 가하는 부정적인 일면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런 면에서 추교수님께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일방적 상호관계의 모델이 아닌, 쌍방적 상호관계의 모델에서 이 운동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또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공공성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을 개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주로 우리 나라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스컴의 역할이라는 측면과, KBS가 보다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가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다 보니까 이번 이산가족찾기운동을 계기로 해서 KBS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이번 캠페인으로 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좀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비판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스컴과 시민참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린다면,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방송의 위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TV라는 것이 바보상자로서 대중을 우민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한다면 국민적 기반 위에서 화해를 조성할 수 있는 공기(公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하나는 과연 해방 이후 3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방송매체가 정착되었읍니다만, 그동안 대중매체는 과연 무엇을 해 왔던가? 우리 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서 시세에 영합하는 인기연예, 스포츠, 오락프로의 모방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송관계자들의 문제의식의 결여라든지, 아이디어의 부재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이라는 것이 잘만 활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무엇인가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즉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을 계도하고 나아가서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국민 각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은, 국민 각자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라는 생활공동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즉 공의식(公意識)을 사의식(私意識) 보다 앞세우고 민족의식을 개인의식에 선행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정착시킨 서구의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뒤돌아 본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주인된 입장에서의 시민들의 강력한 참여정신에 의해서 이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신문이라든지 방송같은 매체의 역할이 대개 컸다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서구의 신문, 방송, 크게는 커뮤니케이션의 영광과 오욕 속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 소멸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보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허다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신문이나 방송같은 대중매체가 교육적이고 계도적이고 변혁적인 기능을 그만큼 제대로 알차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많은 국민들이 대중매체에 접근되어 있읍니다만, 정보의 노출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송신자 위주로 일방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신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간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의 보급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산가족찾기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방송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시민들의 무관심 또는 방관을 강력한 참여로 이끌 수 있는 좋은 프로를 제작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읍니다. 즉,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시민의식의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을 때 앞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KBS의 공공성의 확립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새로운 형태로서 시작된 지는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읍니다. 추교수님 말씀대로 자원과 수단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권을 주었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에 비해서 영리성의 압박을 덜 받으면서 공익성을 보다 더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성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소수집단이라든가 권력의 엘리트들이라든가 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국지화시킬 위험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국민적인 화합 또는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각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부정적인 일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즉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보고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응답을 했다는 앞서의 토론에서도 잘 예증이 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저는 텔레비젼을 잘 안 봅니다마는 이번 KBS의 캠페인은 지나치게 눈물을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찾기운동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아웅산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KBS는 상이 끝나기도 전에 유가족과 직접 인터뷰를 시작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불행을 당한 유가족과 국민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이끌어 줌으로써 화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만, 소위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상이 끝나기 전에 이러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도 차제에 조금 반성을 함으로써 앞으로 프로그램의 작성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교수님께서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제시해 주셨읍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이의가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만 보완을 한다면 프로그램 내용 자체의 공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역사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년과 같이 크고 작은 우울한 여러 가지 사건의 충격 속에서 이러한 이산가족찾기운동은 이 충격을 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감성과 이성에 같은 공감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KBS의 공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즉 이산가족찾기운동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공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쌍방적인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시민의식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간단한 논평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조철화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화선생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에 계십니다. 적십자사는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벌써 오래 전부터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해온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조철화선생님께서 그 분야의 말씀도 곁들여서, 우리 공영방송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 철화

학술 심포지움에서 제가 추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할 자격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다루는 문제가 이산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업하고 적십자하고는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KBS가 벌였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에 연관한 시민의 참여문제,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이러한 데 대해서 잠깐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3000년 전으로 우리 이산가족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어제 오늘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임진왜란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인간역사가 시작해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희랍의 방랑시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보면 율리씨즈가 트로이전쟁이 끝나고 10년동안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많은 고초를 겪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산가족의 문제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요. 지금에 와서도 이산가족을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3,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문제는 결국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딧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읍니다. 결국 이산가족의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뜻있는 사람이나 관심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이 그 당한 각 개인 가족들만이 속을 썩이고 애태웠던 그런 문제였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한 것이 적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863년에 이런 문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만들

어진 것이 적십자입니다. 1863년, 적십자가 만들어져서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는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1870년 7일동안에 있었던 프랑스—프러시아 전쟁입니다. 보불전쟁당시에 전쟁포로와 그 가족의 소식을 연락해 주는 역할을 적십자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전쟁포로와 그 가족하고 소식을 전해주고 연락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부터 적십자가 이산가족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법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국제인도법인 제네바협약—그 제네바협약이 네 개로 만들어집니다마는 그 후에 추가의정서까지 만들어졌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네번째 협약 가운데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분쟁당사국 사이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갈라진 가족,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법에서 다루고 있읍니다. 적십자가 이런 포로와 가족의 문제를 다루다가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것입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1952년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제18차 적십자 국제회의가 정식으로 포로와 가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 이산가족에 관해서 적십자와 관련기관은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된다고 하는 결의를, 1952년을 시발로 해서 그후 쭉 계속해서 그런 결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할 때는 이산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산가족문제는 적십자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고유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적십자는 이산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같은 상태라든지, 또는 인위적인 재해 —즉 man-made disaster라고 합니다마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재해 이런 것에는 쉽게 말해 전쟁이니 국내에서의 충돌사태, 소요사건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이런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시에 불행하게 불가항력적으로 헤어진 가족, 이런 사람을 적십자에서는 이산가족(dispersed family)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 KBS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재미있는 예가 몇 가지 있읍니다. 엊그저께 가출한 아들을 찾아달라든지 애정을 따라서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아달라든지 하는 것은 이산가족에 속하지 않고 그것은 경찰이 다루어야 할 문제고 적십자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산가족의 범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4 제네바협약 25조, 26조에 이산가족의 문제가 나오고 또 제 1 추가의정서 74조에서 이산가족 재회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십자가 그동안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했읍니다.

어번에 KBS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국민 전체의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적십자에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적십자는 뭘하는 자들이냐? 그겁니다. 적십자가 해야 할 일을 적십자는 안하고 KBS가 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어서 남북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심포지움의 효과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된 이후에 많은 가족들이 없어진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사방으로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1954년 8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한국문제와 관련된 제네바국제회의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적십자국제위원회에 17,500명의 남북인사와 2,200명의 미송환 포로명단을 제출하고 이 사람들을 빨리 한국에 돌려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국적이나 또는 북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대한적십자에서는 1956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여동안 남북인사 신고를 접수받았읍니다. 그때 접수받은 인원이 7,034명인데 이 명단을 ICRC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다시 통고를 해서 이 7,034명을 빨리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랬더니 1957년 11월에 뉴델리에서 있었던 적십자국제회의에서 북한대표가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적십자국제위원회를 통해서 한국에 통고만 했지 그 사람들은 실제 송환은 되지 않았읍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북적십자회담이 1971년 8월 12일에 제의가 되어서 그 동안에 굉장한 우여곡절을 거치서 어쨌든 일곱번의 본회담이 개최되었읍니다.

그리고 73년 7월 11일에 하고 나서 회담이 결렬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쪽에서는 이 남북적십자회담이 남북으로 갈라진 1천만 이산가족의 애절한 사연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후에 싫다는 것

을 억지로 북한대표들을 끌어들여서 판문점에서 회의를 시작을 했읍니다. 그것이 78년 3월 19일까지 지속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남북적십자회담의 관계회의는 두절이 되고 채널은 연결이 되어 있는 채 아직은 회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의 공공성하고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KBS 텔레비젼이 이번 6월 30일에 TV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사실은 그 역사는 퍽 오래입니다. 적십자회담이 끝나고 나서 1973년 10월부터 대한적십자사와 KBS라디오는 공동으로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라디오전파를 통해서 매일 "오후의 교차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10분씩 방송을 했읍니다. 그것이 6개월을 계속했는데 비교적 호응이 좋아서 74년 4월 6부터는 지난 6월에 텔레비전프로가 나갈 때까지 매일 오후 10분 내지 15분씩 KBS라디오를 통해서 적십자사가 이산가족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상봉한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읍니다. 그동안 7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산가족을 찾아 달라고 접수를 받은 것이 약 6,500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상봉한 사람이 342건, 사람으로 하면은 662명입니다마는 이것이 73년부터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과인데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텔레비젼을 통해서 그 짧은 138일 동안에 일만명이 넘는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전파매체와 영상매체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찾아 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일보가 74년부터 3년동안 신문을 통해서 이산가족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지기도 했읍니다마는 그 동안에 3,510건의 접수를 받아서 170건의 상봉가족을 탄생시켰던 경험이 있읍니다.

그러나 방송과 신문이 갖는 효과의 제한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이번 TV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읍니다만 텔레비젼이 과연 이산가족찾기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미디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남북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공산권에 살고 있는 중공교포나 사할린교포들과의 편지연락, 그리고 일시귀국, 영주귀국 이런 모든 문제가 현재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1천만 이산가족 외에 휴전 이후 지난 82년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북에 납북된 사람이 아직도 460여명이 있읍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이산가족을 찾는 범주에 같이 넣어서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나가자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봉사원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었읍니다. 신청자를 접수하는 일, 안내를 하는 일, 대필을 하는 일, 보리차를 서비스하는 일, 의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 그리고 텔레비전화면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얼굴을 옆의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KBS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참여방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읍니다. 대학생이라든지 많은 청년단체, 민간업체, 그리고 구청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북의 5도 도민회, 여성단체 그밖에 적십자봉사원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이 이산된 가족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읍니다. 또는 그 후에 명부가 발간이 된 이후에 만남의 광장에서 명부를 열람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좋은 자발적인 참여의 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잘 모르는 전후세대에게 어른들이 또는 주위사람들이 일깨워 줌으로써 새로운 사회교육을 했다는 의미에서도 또 시민의식을 높였다는 데서도 굉장한 큰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공공성에 관계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지나친 공공성을 내세우다 보면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퍽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 하면 적십자가 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꼭 지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되고 은밀하게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효과면에서는 TV 영상매체가 얼굴이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고 해서 도움이 되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TV보다는 라디오가 오히려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드라마타이즈(dramatize)해서 울음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뜻있는 시청자들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든지 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자칫 방송의 역기능을 자아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가 1973년부터 방송프로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방송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방송국은 이런 프로그램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것은 돈도 생기는 일이 아니고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일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기 때문에 많은 방송매체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적십자가 요청했을 때 기쁘게 응해 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일이 별로 없읍니다. 그나마 KBS가 10분, 15분 내 준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6월 30일의 KBS 텔레비전의 전례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방송과 텔레비전은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을 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KBS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공전의 효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지금 라디오방송으로 매일 30분씩 합니다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 시간대에 나누어져서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사회

세 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말하자면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로 발표자께서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이삼 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추 광영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분 선생님의 말씀이 제 주제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일반적인 말씀들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질책 충고와 앞으로의 방향모색에 관한 것으로 알고 그런 의견들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제 논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김진홍박사 그리고 임현진박사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한테 넘기

겠읍니다.

우선 김진홍박사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론적인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에 대한 논급이 제 논문에서는 여건의 제한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언급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임현진박사의 논급에서는 제가 제시한 몇 가지 방안들 중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타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간단히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방안 이것은 대단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런 미디어는 그 권력의 집행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만 그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었을 때 그 합법성을 인정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스 미디어도 국민의 신탁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매스 미디어는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공직자인 정부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매스 미디어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위탁 받아 있기 때문에 그 위탁받은 권리를 성실히 집행하고 민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받은 의무를 충실히 실행할 때 그 매스 미디어는 정통적이고 합법적인 매스 미디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통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매스 미디어의 민주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이론을 김박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제 논문에서도 결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완곡하게 그 점으로 유도를 해 가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문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을 것 같고 또 그 이론에 대해서 소상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조금은 내가 너무 변죽만 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서 그 점은 제 역량부족으로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두번째 임박사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자체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대단히 정확하신 지적이고 제 논문에서 가장 아픈 점입니다. 사실은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페이퍼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공영방송이 곧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거기에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읍니다. 공영방송을 규정하는데에는 대개 몇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읍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소유형태가 공영이냐 민영이냐 국영이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또 바꾸어 얘기하면 공사화되기 이전의 우리 한국 KBS는 문공부 산하의 국영방송이었읍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 관리하는 국영방송이 공사화됨으로써 소유의 형태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방송이 아닌 그리고 사기업이 경영하는 사영이 아닌 공영화 형태가 달성이 되었읍니다. 가장 소극적인 의미로서 공영화가 달성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이들 소유형태의 구분 뿐만 아니라 네 가지 이념을 구현해야 될 것이 당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그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 공익성의 구현입니다. 두번째가 공중에 의한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방송제도라야 된다는 얘기고, 세번째는 정부로부터 민간 혹은 기타 특수이익단체로 부터의 독립이 보장되는 이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공정성이 보장되는, 바꾸어 얘기하면 불편부당주의가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이런 네 가지 이념이 구현되는 것을 저희들은 공영방송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보고 있고 학자들은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박사께서 말씀하신 공정성의 보장방안은 제가 분명히 논급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송캠페인의 함축적인 의미를 공정성이라든가 KBS의 독립성에다가 조명을 하지 않고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네 가지 이념 중에 두 가지인 공공성 혹은 공익성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공중에 의한 참여의 관점에서 조명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앞으로의 개선방안 내지는 과제로 제가 제시하는 것도 시민참여라든가 공중 참여 혹은 공공성의 보장에 대한 방안을 제1차적으로 제시하고 검토를 했읍니다. 따라서 공정성 혹은 불편부당주의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할 수 없었고 구태여 하자면 공정성이라는 것은 제도를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고 방송제도라는 것도 정치시스템의 하위체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체나 국체를 넘어서는 방송체제는 있을 수 없고 지난 조에 제가 방송위원회 세미나에 가

서 공정성 혹은 공영방송에 대한 논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모였던 여러 학자들 얘기는(이중에도 많이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하는 얘기로 귀착되는 것이었읍니다. 바로 이 점이 KBS의 한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중에 합의(consensus)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KBS만의 문제는 아니고 KBS의 공영화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한 차원이 높은 전체 사회 시스템이 문제일 것이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제비 한마리가 봄을 만들지 않는다는 비유를 했읍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KBS가 해야 될 과제가 너무너무 많이 산적이 되어 있고 이것이 분명히 공정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포함된다는 함축된 의미였읍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KBS가 이산가족찾기 방송 하나 잘 했다고 곧 공영화 이후에 완전한 공영방송이 되었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이라는 뜻이었읍니다.

제가 논문에 쓴 것처럼 이산가족찾기 운동과 같은 시민참여적이고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루틴화될 때 진정한 공영화가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읍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담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사회

다음은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겠읍니다. 시간상 많은 분의 질문을 받을 수 없고 추교수가 발표하신 내용하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해서 요망사항 같은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복수

방금 추교수님께서 방송의 공공성을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하부구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체나 국체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추 광영

방송이 사회 전체의 체계, 즉 토탈시스템(total system) 내에서 하나의 하부구조라는 것은 새삼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방송이 우리 나라의 국체나 정체나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민주이념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현 정치체제내의 써브시스템(subsystem)으로서 방송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 한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예를 들면 소련의 방송이나 미디어 제도가 공산주의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체계하에서는 한계 내에서만 기능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영방송이 지금 한국적인 정치상황 혹은 사회문화적인 상황의 제약조건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정 병률(한양대 학생)

책임있게 답변하실 분이 별로 안계신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읍니다.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는 비판은 비난이라는 말을 했던 우리 나라의 대중작가 한 사람이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소설 속에서 이번에 KBS에서 실시했던 이산가족찾기 프로에 관한 하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스튜디오 밖에서 어떤 가족이 상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등켜 안고 둘이서 울고 있는데 이것을 KBS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뜯어 따로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스튜디오 안으로 데려가서 다시 울게 만들어 가지고 이 드라마를 찍어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물론 픽션을 다루는 소설에서 그렇게 영상을 그려낸 것이고 물론 제가 그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시중에 범람하는 대중소설에서 그려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 진위 자체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진위가 정확히 있는 것인가 과연 있다면 이것은 공사로서의 KBS가 민주적인 언론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중 속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닌가, 그리고 30년 동안에 만남을 그리워 했던 그 위안의 눈물을 단 5분간이라도 연장시킬 권리가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싶고, 만일에 그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국민적 화합에 옥에 티가 되는 그 현상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것은 이미 저희 대학생들 사이에 하나의 문제화해서 지나가 버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KBS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

왔는데 그 만난 사람들의 고모가 미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회자가 자꾸 그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정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듯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갔다는 견해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그 사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사회자 한 사람의 견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KBS라는 전파를 탔을 때에는 KBS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랬을 때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KBS가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은 TV에 대한 바보상자라는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이때에 어떤 국민계도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보상자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이 질문에 책임있게 답변해 줄 분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 광영

질문하신 학생 말대로 제가 책임있는 답변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신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2분 정도만 담함으로써 답변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밖에서 만나고 있는 두 가족을 떼어가지고 스테이지로 데려다 다시 만나게 한다.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스테이징(staging)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스테이징의 문제는 분명히 오버 액션(over action)이고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임현진박사나 김박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가 우리 한국 미디어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상중에 있는 유가족한테 가서 마이크나 카메라를 댄다든지 이런 무례는 굉장히 많았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의 자질문제이고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전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싱톤포스트의 쿡스기자사건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지요? 8살짜리 마약중독자를 날조해서 특종기사를 쓰고 퓨리처상까지 받았다가 들통이 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의 양식문제 그리고 퍼포먼스(performance)에서의 그 사

람들의 윤리성 혹은 침소봉대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전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주의 타임지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종 중의 하나가 저널리스트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미국 사람의 13.7%만이 기자를 성실하다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이 신문기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낮은 직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취재과정이라든가 스테이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KBS의 5,000명 전종업원이 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캠페인의 138일 동안에, 장장 450 몇 시간의 방송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티가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악할 때 지엽적인 실수는 우리가 눈감아 주어야 되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바꾸어 얘기하면 설사 한두 사람을 떼어서 스테이징을 했다고 하더라도 KBS의 방송프로그램 진행기간동안에 모든 사람을 다 떼어다가 붙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 주어야 될 것으로 느낍니다. 완벽주의는 어디까지나 완벽주의로 끝이 나야지 완벽한 것만 요구하다 보면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다분히는 센세이셔날한 성격이라는 것을 저도 가르키면서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학생들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는 센세이셔날리즘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사회

공영방송의 문제에 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영방송 얘기를 우리가 길게 했읍니다마는 공영방송이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국영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가령 보도와 같은 것을 보면 다분히 전의 국영방송하고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락방송은 여전히 민영방송의 폐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런 흠이 다분히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의 이산가족찾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나

의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우선 발표자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 욕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방송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점이 발표자도 특히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6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